

■ 연구원 소식

○ 3차 역사문학기행

일 시 : 2019년 11월 30일(토) 09시~18시

장 소 : 경남 거창양민학살사건 추모공원, 남원 실상사

내 용 : 『겨울골짜기』와 만나는 거창의 아픔, 그리고 해원

2019년 3차 역사문학기행이 지난 11월 30일(토) 열렸습니다. 이번 기행은 소설가 김원일의 작품 <겨울골짜기>의 배경이었던 “거창양민학살사건”과 만나는 일정이었습니다.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모두 719명의 무고한 양민을 국군 11사단이 학살했던 현장을 찾아 국가 폭력을 기억하고 비명에 쓰러진 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거창사건추모공원을 방문한 후 함양 벽송사와 남원 실상사를 거치며 희생자들의 해원과 가해자들의 반성, 살아남은 이들의 기억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0여분의 시민과 회원이 함께 한 3차 역사문학기행을 마치고 12월 28일(토) 전봉준과 만나는 순창 피노리 답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달 예정된 2019년 마지막 역사문학기행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네팔의 '은둔 왕국' 무스탕 기행, 여섯 번째 이야기

그림이면 그림, 글이면 글, 차고 넘치는 재주를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영봉 회원님께서 연재한 네팔 무스탕 이야기가 마지막회를 맞이했습니다. 3개월 넘게 네팔이야기를 들려주신 유영봉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좀숨 떠나기가

좀숨. 찾아가기도 힘들었지만, 떠나오기도 힘든 곳이었다. 그건 물론 전적으로 비행기 탓이었다. 아침 일찍 아시시와 마던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먼저 포카라로 출발했다. 전날 오후, 서운한 마음에서 작은 배낭에 몇 가지 물건을 담았다. 미리 준비해두었던 옷가지와 먹다 남은 라면과 누룽지, 학용품 등이었다. 그런데 이 친구 점퍼부터 차려 입고, 내가 준 배낭을 메고 와서 이별을 고했다. 점퍼가 아주 마음에 든단다. 그와의 인연을 사진 몇 장에 담았다. 일찌감치 룯지로 찾아들었던 나머지 포터들도 다투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한다. 열흘가량 고락을 같이했기에 정이 매우 깊어진 연유다.



역시 문제는 우리가 타야할 비행기였다. 8시에 출발하기로 예정된 비행기가 좀처럼 좀습 공항에 나타나질 않는다. 포카라의 악화된 기상 때문에 뜨질 못하는 탓이다. 일단 10시까지 기다려보아야 비행 스케줄과 환불 유무가 결정된단다. 조바심 속에 부질없이 하늘의 표정을 살피는데, 뚝 앞으로 몇 무리의 네팔 군인들이 아침 구보를 하며 지나갔다.

군인은 네팔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이다. 별다른 직장을 갖기가 어렵기에, 이들은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가는 일도 망설이지 않는다. 문득 스위스 루체른에서 보았던 「빈사의 사자상」이 불쑥 떠올랐다. 어찌 보면 사방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이 두 나라의 슬픈 숙명 아닐까?



10시쯤 날거리 봉우리 아래 활짝 펼쳐진 공항으로 나갔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한다. 10시 30분. 예티 에어 소속의 16인승 첫 비행기가 와서 드디어 손님을 태웠다. 그리고 다음 비행기가 우리 차례라며 검색을 시작했다. 아, 비행기를 타고 편히 돌아가겠구나!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런데 일행 가운데 우리 세 사람이 어렵사리 검색대를 통과하고 났을 즈음이다. 느닷없이 플라잇 캔슬! 이라는 외침이 들리는 게 아닌가? 맥이 탁 풀렸다. 이제는 도리 없이 10시간가량 짐차를 타야한다며 수소문하고 있을 때, 갑자기 썸릿 에어 소속의 비행기가 대체한다는 전갈이다.

부랴부랴 표를 바꿔 탑승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KBS 『영상앨범 산』의 촬영 팀이었다. 그들은 우리 보다 이틀 먼저 이곳에 온 700회 특집의 출연진 25명이었다. 그들은 결국 우리가 탄 18인승의 작은 비행기에 9명밖에 타질 못했다. 사실 나도 2014년도에 학생 둘을 데리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으니,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그들은 안산시 체육회 소속의 아주머니들이었다.

어렵사리 창공으로 날아오른 비행기는 20여분 동안 우리들에게 नेपाल의 또 다른 모습을 선사했다. 어느새 포카라에 도착한 일행은 일단 시내로 나가 점심을 해결한 다음, 다시 카트만두행 70인승 비행기로 갈아탔다. 이때 들으니, 즈슴과 포카라를 잇는 비행기는 우리가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카트만두행 비행기는 마침 창가의 자리였다. 멀리 히말라야 준봉들의 웅장한 자태가 흰 구름 사이로 드러났다. 아, 이곳이 진정 नेपाल의 하늘이구나! 이 하늘을 가로질러 이렇게 조금씩 내 나라로 가는구나! 내 작은 발자국을 저 멀리 어느 곳인가 자취 없이 남겨두고 이렇게 떠나는구나!

굿바이, 꾸마리!

저녁 7시 40분발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일행들은 오전에 원숭이 사원을 구경하고, 파탄 왕국의 궁궐이 현존하는 덜발 광장으로 갔다. 지진을 겪은 궁궐은 재건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다. 내친걸음은 인근의 황금사원을 찾았다.

사원 입구에는 꾸마리 또는 꾸마리 데비로 불리는 여신(女神)의 사진 세 장이 나란했다. नेपाल의 '살아있는 여신' 꾸마리는 모두 10명 남짓한데, 힌두교도와 불교도들이 모두 이들을 숭배한다. 황금사원에는 그나마 국가의 공인과 지원을 받는 카트만두와 박타푸르·파탄 지역에서 선정된 꾸마리 사진이 붙어있다. 꾸마리는 नेपाल어로 처녀를 뜻하기도 한다.

꾸마리는 16세기에 왕조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여신을 숭배했던 전통에서 기원한다. 전설에 따르면, 위대한 여신의 현신인 동정녀 꾸마리가 한 손으로 악마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 자유를 선사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नेपाल 사람들은 굳게 믿었다. 꾸마리가 국가는 물론 백성들 개인의 미래와 운명에 관해 예언 능력이 있다고.

예를 들어, 꾸마리가 친견하는 사람을 보고 크게 울거나 웃으면, 치유하기 어려운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된다고 믿었다. 또 눈을 비비거나 눈물을 흘리면,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믿었다. 갑자기 부르르 떨면, 죄를 지어 감옥으로 가게 된다고 믿었다.

꾸마리는 대여섯 살 된 여자 아이들 가운데에서 선발하는데, 무려 32가지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반드시 샤카[釋迦]족으로, 귀족 출신이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눈동자는 검어야 하며, 피부는 보리수나무 같아야 한다. 허벅지는 사슴을 닮아야 하고, 목은 고동처럼 생겨야 한다. 눈꺼풀은 소를 닮아야 한다. 미모는 수려해야 하며, 몸에는 어떤 상처도 없어야 한다는 등등이다.

일단 이런 혈통과 신체조건을 구비하면, 이들은 여신으로서의 능력을 시험받는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소와 돼지·양·닭 같은 가축들의 잘려진 대가리와 함께 꼬박 하루를 지내야 한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이때 혹시 무서워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즉시 탈락된다고 한다. 꾸마리는 두려움이나 슬픔·기쁨과 같은 세속적인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꾸마리가 되면 스스로 걸거나, 말을 하면 안 된다. 넘어지거나 찢리거나 절대 피를 흘려서도 안 된다. 심지어 코피도 금물이다. 그리하여 초경(初經)이 시작되면, 꾸마리 자리에서 물러나 일반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임이라서 초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쫓겨나기도 한단다. 그러나 꾸마리였던 여자와 결혼하면 남편이 비명횡사한다는 속설로 인해 결혼이 쉽지 않단다.

아무튼 꾸마리로 선정되면, 그 가문은 부와 명예를 보장받는다. 취임 순간부터 여신으로 추앙을 받으니, 국왕부부도 머리를 굽히고 경배를 올려야 한다. 꾸마리는 꾸마리사원에서 따로 생활하는데, 1년 중 13회의 크고 작은 축제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외부출입을 할 수 없다. 다만 하루에 두 번씩 관광객들을 위해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데, 이것이 외부와의 유일한 접촉이다. 특히 9~11월에 열리는 꾸마리축제 때에는 모든 국민들이 그녀에게 소원을 빌며, 나라의 안녕을 축원한다.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 부처의 나라 네팔. 꾸마리의 나라 네팔. 그 짧은 조우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무심한 비행기가 어둠을 갈랐다. 나는 이내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굿바이, 꾸마리!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백제의 한이 깃든 계룡산 고왕암, 여섯 번째 이야기 “통천문과 암자 터”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통천문 | 바위 하나가 허공에 뒀다. 덜컹 겁이 난다. 나는 저 틈을 무사히 지날 수 있을까?

통천문으로 가려면 역시 요사채의 공양간을 거쳐야 한다. 사람 좋은 이곳 공양주 보살이 건강한 웃음으로 통천문을 안내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사하촌寺下村에 산다고 소개한다.

통천문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란 뜻이다. 이름에 어울리는 능름한 위용이 기선을 제압한다. 본래는 한 덩어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암벽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머리 위 허공에다가 커다란 바위 하나를 띄웠다. 여차하면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둥그스름한 바윗돌은 대단한 기세다. 통천문 위쪽이 암자 터라고 미리 상정한다면, 통천문은 필경 암자로 드는 일주문이다. 통천문이 사천왕문의 역할을 삼엄하게 대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천연석으로 대충 쌓았기에 사뭇 우직하고 자연스러운 계단이 몸을 사리며 통천문 한가운데를 지른다.

통천문으로 오르는 우측 상단의 암벽은 넉줄고사리가 장식을 한다. 넉줄고사리도 그다지 흔치 않은 식물인데, 하늘로 드는 길목에서 잘 다녀오시라며 곱고 가는 손바닥을 흔든다. 싱그러운 연두색이다.

사실 고왕암에서는 연두색이 주는 힘찬 생명의 약동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우단일엽이나 넉줄고사리 외에도, 부처손과 평의비름이 여기저기에서 군락을 이룬다. 패망의 역사가 한스러워도, 질긴 목숨들은 여전히 이어 나가기 마련이다.

통천문 위의 암자 터는 이제 아쉽지만 밭으로 쓰인다. 그저 흥내만 낸 밭 주변에는 주춧돌로 쓰였음직한 바위 몇 개가 나뒹군다. 언제나 햇살이 내리비치는 양지바른 자리다. 둘러보니, 석중혈石中穴로 이루어진 괘등형掛燈形의 터다. 바위 속으로 내려온 맥이 벽에다가 등불을 걸어 놓은 모양으로 일궈낸 자리라는 말이다. 석중혈의 힘찬 기세는 물론이요, 깎아지른 바위 위에 등잔불처럼 매달린 이 터의 맑고 빼어난 정기는 수행자들을 기다린다. 앞쪽을 내다보니, 멀리 저수지가 보이고 많은 산들이 에워싼다. 발끝은 역시 낭떠러지다. 이곳은 암자 터가 분명하다.

게다가 통천문은 암자의 출입구로 아주 훌륭하지 않은가? 속세를 벗어나 암자로 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도록 이끄는 형상이 아니던가? 모르면 몰라도 지금의 고왕암 자리를 뛰어넘는 암자 터다.

그렇다면 혹 이 자리가 설화 속에 등장하는 마명암 터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불현듯 인다. 이곳에 암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면, 아주 그럴듯한 모습이다. 물론 새파랗게 날을 세운 수행자를 위한 암자다. 하물며 축생도 도를 알아 주인을 위해 목숨을 버렸거늘, 사람으로 태어나 벼랑 끝을 걷는 치열함으로 용맹정진하던 어떤 선각자가 저절로 그려지는 터다.

패망의 역사가 주는 한을 되새기며 산을 내려오는 도중, 해는 설핏 기울어 신원사의 은은한 저녁 종소리가 계룡산에 울린다. 서른여섯 번의 타종에는 늘 종송鐘頌이 뒤따른다.

종소리 들으면 번뇌가 끊기네 聞鐘聲煩惱斷
지혜가 자라네, 깨달음이 생기네 智慧長菩提長
지옥을 떠나네, 삼계를 벗어나네 離地獄出三界
원컨대 성불하여 일체중생 건질지니 願成佛度衆生

산 그림자가 짙어지고 물소리가 깊어졌다. 지금부터는 삼라만상이 지그시 눈 감아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다. 어제와 오늘을 내일로 승화시켜야 할 순간이다. 길가의 달맞이꽃이 달님보다 먼저 병근다.

다음 주는 고려와 조선을 연 <성수산 상이암> 첫 번째 이야기 “성수산 가는 길”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